샛별 황대헌, '무적' 우다징 잡았다

〈중국·평창올림픽 금〉

릴레함메르 이후 올림픽 노골드 종목
스타트·주행·기술 등에서 완벽 제압
황대헌 "최고 선수 뛰어넘어 행복해"

한국 쇼트트랙의 약점이던 500m에 샛별이 떴다. 황대헌(오른쪽)은 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ISU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00m 결승에서 종목 최강 우다징(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소피아(불가리아) | AP뉴시스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에도 약점은 있었다. 바로 500m다. 1000·1500m와 달리 전략보다 스타트가 중요한 종목이라 늘 타고난 피지컬을 앞세운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다. 1994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남자 500m에서 채지훈이 금메달을 따낸 이후 남녀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역사가 없다는 점도 이를 설명한다.

특히 올림픽 시즌만 되면 500m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탓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18평창올림픽도 다르지 않았다. 남자대표팀은 우다징(중국), 여자대표팀은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의 벽에 가로막혔다. 2017~2018시즌을 기점으로 남자 500m는 우다징의 적수가 없었다.

그랬던 우다징을 황대헌(20·한국체대)이 무너트렸다. 황대헌은 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00m 결승에서 42초49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우다징(42초725)과 런지웨이(42초888·이상 중국)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황대헌은 2018년 대회(캐나다 몬트리올)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500m 2연패보다 우다징의 벽을 넘어선 것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황대헌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이 종목 결승에서도 40초742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는 우다징이 불참했다. 2018~2019시즌 월드컵랭킹에선 임효준(한국체대)이 3만1439점을 획득하며 우다징(3만점)을 앞서긴 했지만, 변별력은 떨어졌다. 우다징이 1~3차 월드컵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 뒤 4차 대회부터 불참했기 때문이다. 남자대표팀 입장에선 이번 세계선수권이 우다징과 진검승부를 벌일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황대헌의 이번 우승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2018~2019시즌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도 초반에는 다소 고전했다. 그러나 5차 대회(독일 드레스덴) 은메달, 6차 대회(이탈리아 토리노) 금메달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선수권에서 '무적'으로 평가받던 우다징을 무너트렸다.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스타트는 물론 안정된 주행, 인코스를 유지하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스타트에서부터 상대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치는 스타일인 우다징도 황대헌의 상승세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황대헌은 경기 직후 ISU와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 정말 행복하다. 우다징은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황대헌의 500m 강세가 시사하는 바는 또 있다. 황대헌은 1000m와 1500m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지녔다. 전략에 맞는 주행능력은 이미 검증됐다. 여기에 철저히 개인기량에 의존해야 하는 단거리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부흥고 시절부터 피나는 훈련을 통해 개인기량을 향상했고, 올림픽 시즌인 2017~2018시즌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날개를 달았던 황대헌이 이제는 '월드 클래스'를 향하고 있다. 500m에서 보여준 상승세는 엄청난 노력의 증거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남녀 1500m에서도 금메달을 합창했다. 여자 1500m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이 2분29초47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골인했고, 남자 1500m에선 임효준이 2분31초632로 우승을 차지했다. 임효준은 2위로 골인했으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황대헌이 실격 판정을 받아 순위가 바뀌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신지애, JLPGA 개막전 공동 5위

지난해 '메이저 3관왕'에 빛나는 신지애(31)가 10일 일본 오키나와 류큐 골프클럽(파72·6514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 엔·약 12억2000만 원)에서 최종 합계 1언더파 287타로 공동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신지애는 개막전에서 한국 선수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다. 2017년 안선주(32)와 2018년 이민영(27)의 뒤를 이어 다시 한 번 정상을 노렸다. 그러나 오키나와를 덮친 강풍을 뚫지 못하며 이번 시즌 첫 우승을 다음으로 넘겼다.

3라운드까지 선두 히가 마미코(25·일본)에게 7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파4 2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한 뒤 3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고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 그러나 전반 마지막 파4 9번 홀에서 다시 보기를 범한 뒤 후반 타수를 추가로 줄이지 못하면서 우승과 멀어졌다. 윤채영(32)과 안선주는 5오버파 293타 공동 24위를 차지했고, 이보미(31)는 7오버파 295타 공동 34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마미코에게 돌아갔다. 마미코는 이날에만 4타를 잃으면서 부진했지만, 전날 벌어놓은 7타차 여유를 안고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한국 배드민턴 전멸이라니…" 전영오픈 4년 만에 노메달

올림픽효자종목으로 꼽혔던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대표팀이 아직 세계 정상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베테랑과 신예들의 조화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전영오픈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4년 만에 '노메달'이었다.

안재창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19 전영오픈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유일하게 8강전에 오른 여자단식 세계랭킹 10위 성지현(인천국제공항)이 9일(한국시간) 세계랭킹 4위 천위페(중국)에게 0-2(12-21 16-21)로 패하며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2016년 이용대-유연성 남자복식 동메달, 2017년 장예나-이소희, 정경은-신승찬이 여자복식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지난해는 손완호가 남자단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단 1개의 메달도 수확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됐다.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대표팀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500과 슈퍼300 대회에서는 꾸준히 성적을 냈다. 그러나 최상위 등급으로 슈퍼1000 대회인 전영오픈에서는 세계랭킹 상위 선수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세계랭킹이 7위까지 상승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혼합복식의 새 기대주 서승재(원광대)-채유정(삼성전기)도 8강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 배드민턴 강국 중국을 남여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전 부분에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꼽혔다. 그러나 급격한 세대교체로 정상권에서 멀어졌다. 그 사이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전영오픈에서 8팀이 4강에 올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축구 〈10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팀순위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1	상주	6	2	0	0	4	1
2	서울	6	2	0	0	3	0
3	전북	4	1	0	1	5	1
4	대구	4	1	0	1	3	1
5	인천	4	1	0	1	3	2
6	울산	4	1	0	1	2	1
7	경남	3	1	1	0	3	3
8	제주	1	0	1	1	1	3
9	강원	1	0	1	1	0	2
10	성남	0	0	2	0	1	3
11	포항	0	0	2	0	1	4
12	수원	0	0	2	0	1	6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송시우	상주	2
②	황현수	서울	2
③	로페즈	전북	2
④	무고사	인천	2
⑤	에드가	대구	2

도움

	선수	팀	도움
①	한교원	전북	2
②	세징야	대구	2
③	최재수	경남	1
④	공민현	성남	1
⑤	박동진	서울	1

•2라운드 경기결과

성남종합 **성남 0** (0-1, 0-0) **1 서울** 11,238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4	9	슈팅	2	3
0	0	오프사이드	2	0
7	12	파울	7	10
1	3	코너킥	2	3

▲골=고요한(전46분, 도움: 박동진, 서울) ▲경고=에델, 임채민(이상 성남), 박주영, 박동진(이상 서울)

춘천송암 **강원 0** (0-0, 0-0) **0 울산** 2,834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6	9	슈팅	6	7
0	0	오프사이드	0	1
2	3	파울	11	6
0	6	코너킥	2	2

▲골=없음 ▲경고=오범석(강원), 정재용, 윤영선(이상 울산)

포항스틸야드 **포항 1** (1-1, 0-1) **2 상주** 13,464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2	슈팅	3	6
0	3	오프사이드	1	2
5	2	파울	4	7
0	2	코너킥	1	6

▲골=데이비드(전5분, 포항), 송시우(전14분, 도움: 윤빛가람), 송시우(후9분, 도움: 안진범, 이상 상주) ▲경고=김경재, 김영빈(이상 상주)

DGB대구은행파크 **대구 2** (0-0, 2-0) **0 제주** 12,172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10	9	슈팅	4	6
1	1	오프사이드	1	0
5	5	파울	5	4
2	4	코너킥	2	4

▲골=에드가(후31분), 김대원(후39분, 도움: 세징야, 이상 대구) ▲경고=세징야, 조현우(이상 대구), 아길라르(제주)

인천전용 **인천 2** (2-0, 0-1) **1 경남** 8,108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4	7	슈팅	1	9
1	0	오프사이드	1	0
7	7	파울	6	12
1	1	코너킥	2	4

▲골=남준재(전19분, 도움: 무고사), 무고사(전26분, 도움: 하마드, 이상 인천), 박기동(후33분, 경남) ▲경고=김진야, 임은수, 김정호(이상 인천), 머치, 쿠니모토(이상 경남)

수원W **수원 0** (0-3, 0-1) **4 전북** 19,164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4	슈팅	8	5
0	0	오프사이드	1	1
5	13	파울	9	9
1	6	코너킥	4	3

▲골=로페즈(전2분, 도움: 김신욱), 김신욱(전12분, 도움: 한교원), 로페즈(전21분, 도움: 한교원), 문선민(후21분, 도움: 로페즈, 이상 전북) ▲경고=임상협, 전세진(이상 수원), 손준호(전북)

남자프로농구 〈10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50	39	11	0.780	0	4승
2	전자랜드	50	35	15	0.700	4	1승
3	LG	50	27	23	0.540	12	1승
4	KT	50	26	24	0.520	13	2패
4	KCC	50	26	24	0.520	13	3승
6	오리온	51	24	27	0.471	15.5	2패
7	DB	51	23	28	0.451	16.5	1패
8	인삼공사	50	22	28	0.440	17	1승
9	SK	50	18	32	0.360	21	2승
10	삼성	50	11	39	0.220	28	5패

•경기결과

12-22

KT (26승24패)	93	40 49	28-25 18-25 31-17 4 〈연장〉 8	47 42	97	인삼공사 (22승28패)
SK (18승32패)	90	51 39	22-17 29-16 20-14 19-13	33 27	60	DB (23승28패)
LG (27승23패)	94	46 48	21-6 25-21 21-23 27-21	27 44	71	오리온 (24승27패)

여자프로농구 〈10일〉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35	28	7	0.800	0	1승
2	우리은행	35	27	8	0.771	1	4승
3	삼성생명	35	19	16	0.543	9	1승
4	OK저축은행	35	13	22	0.371	15	1패
5	KEB하나	35	12	23	0.343	16	1패
6	신한은행	35	6	29	0.171	22	2패

•경기결과

KB스타즈 (28승7패)	87	50 37	21-19 29-24 19-8 18-18	43 26	69	신한은행 (6승29패)

NBA 〈10일〉

•경기결과

브루클린 114-112 애틀랜타	보스턴 120-107 LAL	밀워키 131-114 샬럿
미네소타 135-130 워싱턴	새크라멘토 102-94 뉴욕	포틀랜드 127-120 피닉스

프로배구 〈10일〉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5	25	10	74	3330	3077	8승
2	현대캐피탈	36	25	11	70	3245	3048	2패
3	우리카드	36	20	16	62	3127	3061	1승
4	삼성화재	36	19	17	55	3216	3199	3승
5	OK저축은행	35	16	19	49	2957	2992	1승
6	KB손해보험	36	16	20	46	3216	3333	1패
7	한국전력	36	4	32	19	2917	3298	5패

•경기결과

우리카드 (20승16패)	3	25-16 23-25 25-16 20-25 15-6	2	현대캐피탈 (25승11패)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30	21	9	62	2549	2366	1승
2	도로공사	30	20	10	56	2662	2519	1패
3	GS칼텍스	30	18	12	52	2502	2436	1패
4	IBK기업은행	30	16	14	50	2567	2495	1승
5	현대건설	30	9	21	29	2293	2473	2패
6	인삼공사	30	6	24	21	2182	2466	1승

•경기결과

IBK기업은행 (16승14패)	3	25-21 19-25 25-18 25-19	1	도로공사 (20승10패)